

『鄉藥集成方』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강연석¹⁾ · 안상우²⁾

Early-Chosun Korean-herb medicine seen through 『Hayangyakjibsongbang』

Kang Yeon Seok · Ahn Sang Woo

Through the study, these are found out about 「Hyangyakboncho(Korean herb)」 and Sanghanmun of 『Hayangyakjibsongbang』.

First of all, 「Hyangyakboncho(Korean herb)」 is a Korean herb book that contains only the herbs that were produced or cultivated in Korea.

Secondly, 「Hyangyakboncho(Korean herb)」 is a practical herb book which widened its use in Korea.

Third, 「Hyangyakboncho(Korean herb)」 is a practical herb book that was convenient for people.

Fourth, 「Hyangyakboncho(Korean herb)」 is a brand new herb book that gathered all the knowledge about herb in Korea and abroad.

Fifth, 「Hyangyakboncho(Korean herb)」 is a brand new herb book that contains all about processing method.

I. 序論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麗末鮮初의 시기에는 『鄉藥古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救急方』, 『鄉藥濟生集成方』, 『鄉藥採取月令』 및 『鄉藥集成方』 등 鄉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의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논자는 『향약집성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혼동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鄉藥’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들을 정의내릴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鄉藥’은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高麗, 朝鮮 등]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藥材”, ‘鄉藥醫學’은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의학”, ‘鄉藥醫書’는 “향약 및 향약의학을 기술하고 있는 의서”로 정의한다.

『鄉藥集成方』은 959개 病證, 10,706개 處方, 1,475조의 鍼灸法 및 本草, 炮劑法을 실고 있는 전85권으로 이루어진 朝鮮前期 鄉藥醫書이다. 『醫方類聚』와 함께 세종대에 만들어진 官撰醫書면서도 『의방유취』가 세종대에 初刊된 이후 재발간되지 않은 반면, 『향약집성방』은 1433년 세종대에 初刊本이 나온 이래 1454년(단종2), 1456년(세조2), 1478년(성종9), 1479년(성종10), 1488년(성종19), 1633년(인조11) 및 1942년에 재발간되었다. 특히 조선의학의 분수령이 된 『東醫寶鑑』 이후의 의서들에는 조선전기의 두 책이 모두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1633년과 1942년에 『향약집성방』이 재발간된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더더군다나 1633년은 淸의 침입이 시작된 시점이고 1942년은 일제강점기였다는 점으로 보아 『향약집성방』의 의학은 의학 자체의 역할 외에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방유취』나 『동의보감』과 달리 『향약집성방』에는 향약의학을 집대성한 향약의서로서의 독특한 면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작은 단서이다.

기존의 연구는 引用文獻, 編輯體裁, 序跋文, 王朝實錄 記事 등에 대한 기초연구만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은 ‘鄉藥方을 집대성하여 醫藥 자립의 기초마련’, ‘官撰醫書로서 백성들이 손쉽게 값싸게 이용하기 위한 의서’, ‘기존의 의학지식에 鄉藥材를 이용한 經驗方을 덧붙임’이라 하였으며, 『향약본초』에 대해서도 ‘기존의 본초학 지식에 鄉名을 덧붙이고 포제법에 관한 실효적 방법을 기술함’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향약집성방』의 향약의학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에 저자는 『향약집성방』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및 기존 의서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향약의학의 독특한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첫 단추로 『향약본초』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상한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향약본초』는 조선전기 조선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향약을 대상으로 하며, 당시의 조선과 중국의 본초 및 포제 지식을 총망라하면서,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향약본초

학 저술임을 알게 되었고, 「상한문」은 「향약본초」에 기재된 향약을 그 재료로 하여 처방을 구성하고 치료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제작된 편찬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어 본 논문을 통해 보고한다.

II. 本 論

1)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를 통해 본 조선전기 鄉藥

표1. 鄉藥本草의 체재

鄉藥本草 概論 : 76권

指南總論

論處方法, 論合和法, 論服藥法,
用藥分兩例, 用藥身梢例,
用藥丸散例, 用藥酒洗曝乾例

諸品藥石炮製法度 (211종)

石部(17종), 草部(90종), 木部(32종),
人部(3종), 獸部(14종), 禽部(3종), 蟲魚部(27종),
菓部(8종), 米穀部(9종), 菜部(8종)

鄉藥本草 各論 (703종) : 77-85권

石部上品 (16종), 石部中品 (42종), 石部下品 (53종)

草部上品之上 (29종), 草部上品之下 (23종),

草部中品之上 (27종), 草部中品之下 (33종),

草部下品之上 (21종), 草部下品之下 (45종)

木部上品 (28종), 木部中品 (34종), 木部下品 (16종)

人部 (19종)

獸部上品 (12종), 獸部中品 (54종), 獸部下品 (21종)

禽部上品 (19종), 禽部中品 (7종), 禽部下品 (19종)

蟲魚部上品(18종), 蟲魚部中品(27종), 蟲魚部下品(36종)

果部上品 (10종), 果部中品 (6종), 果部下品 (11종)

米穀部上品(6종), 米穀部中品(23종), 米穀部下品(7종)

菜部上品 (18종), 菜部中品 (10종), 菜部下品 (13종)

1. 당시 조선에서 生産되거나 栽培되는 藥材만을 기술한 鄉藥本草書

표2. 「향약본초」에 없는 藥材

石部上品	丹砂, 朴消, 禹餘糧 등
石部中品	雄黃, 石硫黃, 雌黃, 辰砂, 陽起石 등
石部下品	礬石, 砒霜 등
草部上品之上	甘草, 木香, 巴戟天 등
草部上品之下	黃連, 肉蓯蓉, 丹參 등
草部中品之上	麻黃, 貝母, 狗脊, 紫菀, 敗醬 등
草部中品之下	防己, 高良薑, 薑黃, 肉豆蔻, 白豆蔻 등
草部下品之上	附子, 烏頭, 天雄, 甘遂 등
草部下品之下	何首烏, 骨碎補, 連翹, 山豆根 등
木部上品	桂, 辛夷, 丁香, 沈香, 乳香, 蘇合香 등
木部中品	檳榔, 猪苓, 烏藥, 沒藥, 龍眼, 大腹 등
木部下品	巴豆, 蘇方木, 益智子 등
人部	
獸部上品	龍骨 등
獸部中品	犀角 등
獸部下品	
禽部上品	
禽部中品	
禽部下品	
蟲魚部上品	眞珠 등
蟲魚部中品	
蟲魚部下品	五靈脂 등
果部上品	
果部中品	枇杷葉 등
果部下品	
米穀部上品	
米穀部中品	
米穀部下品	
菜部上品	
菜部中品	
菜部下品	

☞ 「상한문」 분석 참조

2. 조선에서의 활용성과 백성의 편리성을 도모한 實用本草書

2.1.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實用本草書

표3. 「향약본초」의 人蔘 조문

1) 人蔘,味甘,微寒,微溫,無毒.主補五臟,安精神,定魂魄,止驚悸,除邪氣,明目開心益智.療腸胃中冷,心腹鼓痛,胸脇逆滿,霍亂吐逆,調中,止消渴,通血脈,破堅積,令人不忘.久服輕身延年.一名人銜,一名鬼蓋.一名神草,一名人漫,一名土精,一名血蔘.根如人形者有神.①生山谷.二月,四月,八月月上旬採根,竹刀刮曝乾,無令見風.②茯苓爲之使,惡人溲疏,鹵鹹,反藜蘆.

2) 《圖經》曰 春生苗,多於深山中背陰,近椴漆下濕潤處,初生小者三四寸許,一極五葉 四五年後生兩極五葉,未有花莖 至十年後生三極,年深者生四極,各五葉.中心生一莖,俗名百尺杵.三月,四月有花,細小如粟,葉如絲,紫白色.秋後結子,或七八枚,如大豆,生青熟紅,自落.《藥性論》云 馬薊爲之使.消胸中痰,主肺痿吐膿及癆疾,冷氣逆上,傷寒不下食,患人虛而多夢紛紜,加而用之.《肅炳》云 人蔘和細辛密封,可留經年不壞.《日華子》云 殺金石藥毒,調中治氣,消食悶胃,食之無忌.《海藥》云 又有手脚,狀如人形,長尺餘,以杉木夾定,紅絲纏飾之.又有沙州蔘,短小不堪採,根用時去其蘆頭,不去則吐人.③《眞珠囊》云 氣薄味厚,可升可降,陰中陽也.其用有五 補諸虛不足,一也 益元氣,二也 瀉肺,三也 瘡瘍排膿止痛,四也 壯脾胃,五也.

표4. 「향약본초」의 石鐘乳 조문

石鐘乳,味甘,溫,無毒.主欬逆上氣,明目益精,安五臟,通百節,利九竅,下乳汁.益氣,補虛損,療脚弱疼冷,下焦傷竭,強陰.久服延年益壽,好顏色,不老,令人有子.不鍊服之,令人淋.一名公乳,一名蘆石,一名夏石.生山谷,採無時.蛇床爲之使.惡牡丹,玄石.畏紫石英,藁草.(今出本朝平安,黃海,江原等道石窟中)

2.2. 백성의 손쉬운 이용을 위해 편리성을 높인 實用本草書

☞ 표1 및 「상한문」 분석

3. 국내외 본초지식을 총망라한 最新本草書

3.1. 국내외 본초지식을 총망라한 最新本草書

『증류본초』

『본초연의』

『탕액본초』

『진주낭』

3.2. 炮製法을 집대성한 最新本草書

☞ 표1 참조

2) 『鄉藥集成方』 중 「傷寒門」을 통해 본 조선전기 鄉藥醫學

1. 『향약집성방』 「傷寒門」은 당시 조선에서 生産되거나 栽培되는 藥材를 중심으로 기술한 鄉藥醫書이다

표5. 『향약집성방』 「상한문」과 『상한론』의 사용 본초 비교

『향약집성방』	『상한론』에는 나오지만 「상한문」에는 없는 본초	『상한론』
薑 豉 梔子 大黃 人蔘 蔥 葛根 地黃 芍藥 黃芩 升麻 石膏 柴胡 半夏 陳皮	마황 계지 부자 감초 저령 우여량 용골	麻黃 桂枝 葛根 石膏 大黃 柴胡 乾薑 附子 吳茱萸 芍藥

2. 『향약집성방』 「傷寒門」은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백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한 實用醫書이다.

표6. 『향약집성방』 「傷寒門」과 『동의보감』 「寒門」의 체재 비교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可汗形證	不可汗形證	寒(上)	寒(下)		
可吐形證	不可吐形證	冬爲傷寒	傷寒煩渴	傷寒潮熱	
可下形證	不可下形證	傷寒號爲大病	傷寒發狂	傷寒譫語鄭聲	
可火形證	不可火形	兩感傷寒爲死證	傷寒結胸	傷寒藏結	
可水形證	不可水形證	脉法	傷寒痞氣	傷寒筋惕肉瞤	
可溫形證		傷寒變熱	傷寒除中證	傷寒血證	
中風傷寒	傷寒時氣	傷寒傳經	傷寒自利	傷寒胸腹痛	
傷寒疫癘	傷寒結胸	傷寒或愈或死日期	傷寒吐衄	陰陽交證	
傷寒潮熱	傷寒譫語	傷寒大法	壞證	百合證	
傷寒煩渴	傷寒煩躁	太陽六傳	過經不解	勞復食復證	
傷寒厥	傷寒頭痛	六經標本	傷寒遺證	陰陽易證	
傷寒喘	傷寒陰陽易	太陽形證用藥	熱入血室證	傷寒無脉爲欲汗	
傷寒陰毒	傷寒陽毒	陽明形證用藥	差後昏沈	餘熱不退	
傷寒兼食毒		少陽形證用藥	狐惑證	傷寒差後雜證	
傷寒發斑	傷寒發黃	太陰形證用藥			
傷寒發豌豆瘡		少陰形證用藥			
傷寒發狂	傷寒剛痊	厥陰形證用藥	傷寒治法	傷寒欲解	
傷寒嘔吐	傷寒鼻衄		傷寒可吐證	可汗不可汗證	
傷寒吐血			可下不可下證	可和不可和證	
傷寒心腹痞滿	傷寒心腹脹痛	傷寒陽證	傷寒凶證	傷寒不治證	
傷寒下膿血痢	傷寒口瘡	傷寒表證	傷寒十勸	傷寒戒忌	
傷寒狐惑	傷寒下部腫痛	傷寒半表半裏證	中寒證	感寒及四時傷寒	
傷寒大便不通	傷寒小便不通		外感挾內傷證	孕婦傷寒	
傷寒熱毒攻眼	傷寒百合	傷寒陰厥	痼冷		
		傷寒陰毒			
傷寒後夾勞	傷寒後勞復	陰盛隔陽	傷寒有五種		
傷寒後食復	傷寒後骨節煩疼	陰極似陽	傷寒十六名		
傷寒餘熱不退	傷寒後虛煩		傷寒相類四證		
傷寒後虛羸盜汗 (附: 虛汗)		傷寒雜證	傷寒賦		
傷寒後心虛驚悸	傷寒發嘔噦	傷寒頭痛身疼百節痛			
傷寒後不得睡	傷寒後虛損夢洩	惡寒惡熱往來寒熱			
傷寒後雜病		傷寒看面目舌色			
		傷寒合病	傷寒併病		
附: 辟溫病方		傷寒煩燥	傷寒戰慄		
可灸形證	不可灸形證	傷寒動悸	傷寒動氣	單方	鍼灸法

2.1. 『향약집성방』에서는 六經辨證을 언급하지 않음

☞ 「향약본초」 분석 참조

2.2. 『향약집성방』에서는 약물 가지수가 적은 처방을 선택함

Ⅲ. 結 論

본 논문은 『향약집성방』 「향약본초」와 「상한문」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鄉藥醫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 및 「상한문」에 대해 알게 된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향약본초」는 당시 조선에서 生産되거나 栽培되는 藥材만을 기술한 鄉藥本草書이다.

둘째 「향약본초」는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實用本草書이다.

셋째 「향약본초」는 백성의 손쉬운 이용을 위해 편리성을 높인 實用本草書이다.

넷째 「향약본초」는 국내외 본초지식을 총망라한 最新本草書이다.

다섯째 「향약본초」는 炮劑法을 집대성한 最新本草書이다.

위와 같은 「향약본초」에 대한 연구를 통해 『鄉藥集成方』 76-85권의 「鄉藥本草」는 麗末鮮初 조선의 영토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인 鄉藥을 대상으로 하며, 당시 조선과 중국의 본초 및 포제학 지식을 총망라하여 조선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鄉藥本草學을 집대성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鄉藥集成方』 5-8권의 「傷寒門」은 「향약본초」에 실린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한 鄉藥醫書일 뿐 아니라 의학적 성취보다도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편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